

# 청와대 홈페이지 이용 상의 선택적 노출에 관한 연구

최연태\*

Ⅰ. 서론	Ⅴ. 제한적 종속변수 모형(limited dependent variable model) 분석 결과
Ⅱ.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Ⅵ. 결론
Ⅲ. 연구설계	
Ⅳ. 주요 변수들에 대한 記述的 분석	

## 〈요 약〉

클릭스트림 데이터를 이용하여 청와대 웹사이트에 대한 실제 이용도를 분석한 결과 개인들의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와 정치적 관심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즉,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청와대 홈페이지를 방문할 확률이 높고, 또 방문일수와 페이지 뷰로 측정된 이용도 역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통적 정보선택이론(selective exposure theory)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한편 정치적 관심도와 지지정당 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결과 정치적 관심 증가에 따른 청와대 웹사이트 이용 증가율이 反한나라당 계열 지지자, 親한나라당 계열 지지자, 무당파의 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야당 성향일수록 여당 성향이나 무당파보다 정치적 관심 증가에 따른 청와대 홈페이지 이용 증가율이 큰 것은 자신들의 태도나 신념에 반대되는 정보가 갖는 효용성(utility)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정치적 관심이 높은 야당 성향일수록 청와대 웹사이트를 상대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경향이 나타난 것은 자신이 반대하는 정권의 입장과 활동에 대한 정보를 얻어 이를 비판 내지 공박하는 자료로 활용하기 때문이라는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일맥 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그밖에 본인을 제외한 청와대 홈페이지 방문가족수가 증가할수록 본인의 청와대 홈페이지 이용도가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일종의 가족 내 지식 확산에 기인한다고 보여 진다.

본 연구는 청와대 웹사이트 이용에 있어 기본적으로 정치적 선택성이 지지되지만, 정치적 반대 입장에 대한 기피로 인한 정치적 양극화(polarization)에 대한 우려는 그리 크지 않음을 암시하고 있다.

**【주제어: 청와대 웹사이트 이용도, 선택적 노출, 대통령에 대한 신뢰, 정치적 관심, 정보 유용성】**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시장과정부연구센터 선임연구원(cyt0505@snu.ac.kr)  
논문접수일(2012.2.13), 수정일(2012.3.21), 게재확정일(2012.3.28)

## I. 서론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인한 매체 및 채널수의 증가, 콘텐츠의 양적 증가와 다양성 확대는 필연적으로 개인의 정보선택권을 강화시켰다. 즉, 인터넷 환경에서 하이퍼텍스트 네비게이션(hypertext navigation)으로 개인의 정보 선택권이 강화됨에 따라 이제 개인들은 자신의 정치적 견해와 일치하는 콘텐츠만 소비하고 정치적 견해가 다른 콘텐츠는 회피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게 되었다(Buchstein, 1997; Putnam, 2000; Sustein, 2001; Jaeger, 2005; 양정애, 2011; 최윤정·이종혁, 2011).

많은 선행연구들이 인터넷 상에서 개인들이 자신의 선호와 취향에 맞는 정보들만 선택적으로 접촉하는지 아니면 자신의 의견과 상반되는 정보나 반대 견해도 관심을 갖는지를 선택적 노출이론(selective exposure theory)의 틀로 분석해 왔는데 1960년대 시작한 선택적 노출에 대한 논쟁은 인터넷 미디어 환경 하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과거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선택적 노출이론을 지지하는 연구들(Knobloch-Westerwick & Meng, 2009; Garrett, 2009)과 아울러 자기 의견과 상반되는 정보나 반대 의견에도 노출되는 현상을 발견한 연구들(Iyengar et al., 2008; DiMaggio & Sato, 2003; Horrigan, Garrett, & Resnick, 2004)이 병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최윤정·이종혁, 2011).

그런데 개인들의 정치 관련 정보 습득 과정에서 선택적 노출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지 여부는 숙의민주주의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왜냐하면 사회구성원들의 정치 콘텐츠 소비와 커뮤니케이션 행태에서 정파적 정보선택(partisan selective exposure)이 만연할 경우 개인들은 점점 양극화되고 사회는 정치적으로 분절화(politically fragmented)됨으로써 숙의민주주의 구현은 요원해 질 것이기 때문이다(Sunstein, 2002; Garrett, 2006). 이에 반해 정치적 반대 의견에 대한 노출이 가져다주는 긍정적 효과로는 상호 대립되는 논거들(rationales)에 대한 이성적 검토를 통해 숙의(deliberation) 능력을 배양하고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관용(tolerance)을 증가시키며 정치·사회 현상을 보다 종합적으로 분석하게 해주는 확장된 정신(enlarged mentality)을 갖게 해준다는 것을 들 수 있다(Mutz, 2002; Price et al., 2002; Garrett, 2006; Arendt, 1968).

이처럼 인터넷은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진 개인들 간의 접촉과 대화를 촉진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기술이지만 선택적 노출 현상이 만연할 경우 중요한 정치·사회적 이슈와 관련하여 서로 다른 입장들에 대한 숙의(deliberation)를 저해할 수도 있다(Jaeger, 2005). 실제로 인터넷상의 많은 정치 관련 정보들은 정치적 양극화를 조장하는 경우가 많은바 온라인상의 많은 정치 관련 정보들은 상호토론을 전제한 것이라기보다는 특정 입장의 일방적 선언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Wilhelm, 1998; Jaeger(2005)에서 재인용). 이러한 온라인상에서의 정치적 양극화는 숙의 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 관점에서 보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민주정치 과정에서 자유로운 의견교환과 반대 견해에 대한 숙의가 갖는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인터넷상의 선택적 노출로 인한 정치적 양극화 발생 가능성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최연태·박상인, 2011).

이에 본 연구는 정부부처 홈페이지 중 정권의 홍보와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어 콘텐츠 소비에 있어 정파성에 따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는 청와대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이러한 정파적 정보선택 현상(partisan selective exposure)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청와대 웹사이트는 시민들이 대통령에 관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공간으로 주로 대통령의 국정수행과 관련된 소식 및 대통령이 추진하는 부처별 주요 정책에 대한 홍보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만일 정파성에 기인한 선택적 노출 현상이 실재한다면 대통령에 대한 신뢰 정도에 따라 개인들의 청와대 웹사이트 이용도가 달라질 것이라 추론해 볼 수 있다. 즉, 대통령을 신뢰하는 지지자들은 그 반대자들에 비해 청와대 웹사이트를 보다 많이 방문할 것이다. 본 연구는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가 청와대 웹사이트 이용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정파성에 따른 선택적 노출 현상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이하에서는 이명박 정권하인 2010년 1월부터 12월까지 Nielsen KoreanClick<sup>1)</sup>의 가족별 ID가 부여된 개인패널들의 월별 청와대 웹사이트 이용 내역이 담긴 원시 데이터(raw data)와 Nielsen KoreanClick 개인패널들을 대상으로 2011년 8월 4일부터 8월 22일 사이에 실시되었던 서베이인 ‘공적 영역에 관한 네티즌들의 행태 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위 연구주제에 대해 실증 분석한 결과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 1. 지지의견 노출과 반대의견 노출

일찍이 Habermas는 사회구성원들이 합리적 의사소통을 통해 보편적 이익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공론장(public sphere)을 강조하였는바 인터넷 공간이야말로 이러한 숙의민주주의 공론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받아왔다. IT기술 발전에 따른

1) 국내 인터넷 사용자의 인터넷 사용 행태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여 인터넷 산업 및 미디어 리서치와 컨설팅 서비스 그리고 검색엔진마케팅 정보를 국내외 기업에게 제공하는 인터넷 지식전문기업임.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방식과 시민의 참여 증대로 인해 인터넷은 과거 대중매체들의 일방적 여론형성 기능을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지난 몇 년 동안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우리 사회의 여론형성 과정을 살펴보면 몇 가지 우려스러운 모습이 관찰되는바 특히 심각한 것은 인터넷이 당초 예상과 달리 진정한 공론의 장이 되기보다 집단 극화 양상을 보이며 집단 간 대결의 장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오미영, 2011).

이러한 온라인 공간상의 집단 극화(group-polarization)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들 중 하나가 선택적 노출이론(selective exposure theory)이다. 선택적 노출(selective exposure)이란 사람들이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자신의 기존 관점에 부합하는 정보는 선택하는 반면 그렇지 않은 것은 기피하는 심리적 경향을 말한다. 애초 선택적 노출은 미디어의 제한적 효과(minimal effect)를 설명하는 개념으로 제시되었는바 자신의 입장과 상충하는 정보에 노출되지 않음으로써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이다. 정파적 정보선택(partisan selective exposure)이란 선택적 노출 현상이 개인의 정치성향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개인들의 정치적 선호와 그들이 선택하는 매체의 정치적 성향 간에 관련성이 큰 것을 일컫는다(Stroud, 2006). 이러한 정파적 정보선택은 온라인상에서의 정치 참여 격차 유발은 물론, 참여자간 정치 성향 차이에 따른 정치적 분절화를 야기할 수 있다(오미영, 2011).

Festinger(1957)의 인지부조화 이론(cognitive dissonance theory)에 따르면, 사람들은 인지부조화로 인한 심리적 불안감을 피하기 위해 자기 의견과 다르거나 기존 신념을 위협하는 정보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이 이론에 의하면 정치기사 등을 접할 때 자기 의견과 부합하는 것만 접하려는 선택적 ‘지지의견 노출’을 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선택적 지지의견 노출 현상은 많은 선행연구들에 의해 검증되어 왔는바(최윤정·이종혁, 2011) 이중 인터넷 매체 이용과 관련된 선행연구들로는 Bimber & Davis(2003), Best et al.(2005), Kobayashi(2006), Stroud(2008), Garrett(2009) 등이 있다.

Bimber & Davis(2003)는 2000년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원과 공화당원이 각각 고어와 부시의 선거운동 웹사이트를 주로 방문하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하였고, Best et al.(2005)은 부시 정부에 대한 미국 언론의 비판적 평가가 특히 적었던 2003년 초, 부시 대통령에 비호적인 사람일수록 온라인 외국 뉴스 매체를 이용할 가능성이 컸음을 보여주었다. Kobayashi(2006)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정치 정보에 대한 웹 검색에 있어 아주 중요한 이슈에 한해서 선택적 접촉 현상이 제한적으로 존재함을 발견되었으나 반대 주장들에 대한 선택적 기피(selective avoidance) 현상은 실증적으로 지지되지 않았다고 한다. Garrett(2009)은 인터넷을 통한 정치 관련 정보 탐색에서 사람들이 자기 의견과 다른 정보보다는 비슷한 정보에 스스로를 노출시키는 경향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정치선거 기간의 미디어 이용에 대한 연구에서도 사람들은 정치적 성향과 이데올로기에 따라 신문, 라디오, 케이블 뉴스, 인터넷 뉴스사이

트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troud, 2008).

Knobloch-Westerwick & Meng(2009)은 인터넷 상에서 여러 가지 기사 제목이 주어졌을 때, 어떤 기사를 선택하는지를 분석하는 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험결과 피험자들은 자기 의견과 비슷한 기사를 읽는 시간이 반대되는 기사를 읽는 시간보다 36% 정도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자유로운 기사 선택과 다양한 기사 읽기가 보장된 인터넷 환경에서 선택적 노출 현상이 검증된 셈이다(최윤정·이종혁, 2011).

한편 반대의견 노출은 앞에서 살펴본 지지의견 노출과는 반대로 자기 견해와 배치되는 정보도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고, 다른 의견에 대해 관심 가지고 접하는 현상을 Chaffee et al.(2001)은 ‘반대 의견에 대한 관심(attention to counter-attitudinal message)’라고 표현했고, Mutz(2002)는 ‘異見 교류(cross-cutting exposure)’라고 규정했으며, Scheufele et al.(2004)은 ‘네트워크 이질성(network heterogeneity)’이라고 표현하였다.

사람들은 다른 의견을 접했을 때 자신과 타인들이 나름의 의견을 형성하게 된 논거들(rationales) 대해 이성적 판단을 하게 되며(Mutz, 1998), 그 결과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관용(tolerance)이 증가하게 된다(송현주·신승민·박승관, 2006; 김은미·이준웅, 2006; Stouffer, 1995). 이러한 역지사지(易地思之)의 과정을 거쳐 자기 견해를 고수하더라도 다른 의견에 대한 선입견이 줄어들고 상대방과의 정서적 유대감(affective bonding)이 형성된다고 한다(Mutz, 2002; 최윤정·이종혁(2012)에서 재인용).

Kobayashi(2006), Garrett(2009), Valentino et al.(2009)의 연구들에서는 공통적으로 선택적 노출로 인한 정치적 양극화 우려는 그리 심각하지 않다고 하면서 그 근거로 반대 정보에 대한 노출을 들고 있다.

## 2. 전자정부 웹사이트와 선택적 노출

본 연구는 이러한 정파적 정보선택 현상이 속의 민주주의(deliberate democracy) 구현의 중요한 수단이라 할 수 있는 전자정부 웹사이트 이용과 관련해서도 발생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오늘날 속의 민주주의(deliberate democracy)의 구현을 위해서는 정부정책과 관련된 정보의 효과적 활용이나 공청회 등에서의 적극적인 의견제시 그리고 정책숙의(policy deliberation)에의 참여 등이 필요하며(정광호, 2008) 이 모든 활동들은 정보서비스(e-information), 민원행정서비스(e-civil affairs), 참여서비스(e-participation)로 대표되는 전자정부 서비스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박경효, 2009). 따라서 전자정부 웹사이트 이용에 있어 정파적 정보선택 현상이 현저히 존재할 경우 이는 시민들 간 정치적 양극화 심화와 정치

참여 격차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바 본 연구가 민주적 참여 관점에서 갖는 의의가 크다 할 것이다.

전자정부 서비스는 한편으로는 공적 관심사항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을 제공하고 토론을 장려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신장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의 입장만 강조하고 정치적 토론을 저해함으로써 정치적 양극화(political polarization)를 야기할 수도 있다(Jaeger, 2005). 즉, 전자정부 웹사이트는 정보 제공 방식에 따라 중요 정책 현안에 대한 시민들의 토론과 참여를 조장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단순한 정부정책의 홍보수단으로 전락함으로써 오히려 대화와 참여를 저해할 수도 있다. 그런데 대통령실을 포함한 대부분의 정부부처 웹사이트들은 정치 현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정부의 일방적 관점만 전달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Jaeger, 2005; 최연태·박상인(2011)에서 재인용).

이처럼 전자정부 웹사이트 이용을 둘러싼 정파적 정보선택에 대한 상반된 견해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정부부처 웹사이트 이용 상의 선택적 노출을 주제로 한 국내 연구는 최연태·박상인(2011)의 연구가 유일하다. 하지만 최연태·박상인(2011)의 연구는 정파성을 띠는 부분이 일부에 국한된 중앙정부부처 웹사이트 이용 전반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또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 연구에 의존하였다는 자료상의 한계가 있다. 따라서 청와대 홈페이지와 같이 정권홍보와 보다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짐으로써 정파성이 한층 두드러진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서베이 자료가 아닌 실시간 클릭스트림 데이터를 이용하여 선택적 노출 현상을 정확히 포착해내고자 시도하였는데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정파성에 기인한 선택적 노출을 야기할 가능성이 큰 청와대 웹사이트의 정파적 속성(partisanship)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 3. 청와대 웹사이트의 정파성(Partisanship)

청와대 웹사이트와 유사한 미국 백악관 웹사이트의 경우 내용과 형식면에서 집권당의 가치와 이데올로기 그리고 정책을 강조하는 일방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텍스트와 상징 그리고 구조를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 즉,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현재의 지지도를 제고하고 재집권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웹사이트 상에서 최대한 인기가 높고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줄 유인이 있다. 따라서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관점에서 보면 대통령실 웹사이트를 현안에 대한 정권의 입장을 전달하는 유용한 매체로 간주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하지만 대통령실 웹사이트를 통해 일방적인 입장만을 대변함으로써 참여를 촉진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정치적 양극화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한다(Jaeger, 2005; 최연태·박상인(2011)에서 재인용).

본 연구의 대상인 청와대 웹사이트에 대해 살펴보면 일단 메인 화면에 대통령 부부의 동정과 관련된 사진 자료들이 나타난다. 청와대 사이트 맵을 살펴보면 청와대 홈페이지의 구성은 크게 아래 <표 1>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다섯 개의 범주로 구성되어 있다.

‘청와대 소식’란은 주로 대통령과 영부인의 프로필과 더불어 주요 일정과 어록, 연설문 등을 제공하고 있다. ‘청와대 미디어’란은 대통령의 동정과 관련된 KTV 영상뉴스와 사진자료, me2day, facebook, twitter와 같은 SNS 서비스, 청와대 소식지와 포토에세이 등을 제공함으로써 대통령과 주요 정책을 홍보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국정자료’란은 국정철학과 국정지표 그리고 임기동안의 대내외적 치적들을 소개하고 있다. ‘청와대 광장’은 청와대 관련 공지사항을 알리는 「청와대 알림판」, 정부 정책과 관련된 부처별 입장을 해명하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의 코너와 국민들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열린게시판」과 전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민원을 신청할 수 있는 「국민신문고」 등의 메뉴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일반국민들의 참여도가 가장 큰 것은 「열린게시판」내 「자유게시판」코너로 2008년 2월 25일부터 2012년 1월 30일까지 약 4년 동안 36만 5천여 건의 글들이 등록되었다. 자유게시판은 실명확인을 통한 회원가입 후 글을 등록(답글 포함)할 수 있으며 공감수 등을 기초로 ‘추천글’을 선정하여 별도로 게시하고 있는바 현 정권에 반대되는 의견을 자유로이 개진하는 데는 다소 제약이 따른다고 볼 수 있다. ‘청와대 안내’란은 청와대 및 정부 조직도와 청와대의 시설 및 역사, 대통령기록관 등을 소개하고 있으며, 청와대 주변 관광 및 청와대 관람 등을 안내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청와대 웹사이트는 전반적인 구조와 내용이 대통령과 정권의 홍보에 초점을 두어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주로 대통령과 현 집권세력에 대한 정치적 지지자들이 자주 그리고 오래 방문할 확률이 크다고 볼 수 있다.

<표 1> 청와대 홈페이지의 내용 구성

청와대 소식	청와대 미디어	국정자료	청와대 광장	청와대 안내
청와대 뉴스 브리핑 룸 일정 라디오·인터넷 연설 대통령 연설 이명박대통령 김윤옥 여사	영상뉴스 사진자료 특독 푸른지붕 미디어 채널 청와대 SNS 블로그편지 청와대 정책소식지 포토에세이	국정철학 국정지표 주요 국정성과 정상외교 G20 정상회의	열린게시판 청와대 알림판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민신문고 정보공개 운영자메일 지난 이벤트	청와대/정부 조직도 청와대 소개 청와대 역사 대통령기록관 청와대 오시는 길 청와대 주변 관광 청와대 관람 청와대사랑채

### Ⅲ. 연구설계

#### 1. 연구가설 및 분석모형

##### 1) 연구가설

한국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살리기, 대학입학사정관제, 자유무역협정(FTA) 그리고 미국의 "No Child Left Behind" 프로그램<sup>2)</sup> 등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전자정부 웹사이트는 정부 정책의 일방적 홍보와 정당성 선전에 치중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전자정부 웹사이트가 정파성(partisanship)을 띠지 않을 경우 전자정부 웹사이트 이용에 있어서도 선택적 노출 현상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고자 하며 이를 위해 정권 홍보와 보다 직접적으로 관련된 청와대 웹사이트를 분석대상으로 삼게 되었다(최연태·박상인, 2011).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민들의 청와대 웹사이트 이용행태는 크게 기존 입장을 지지·강화하는(reinforcement seeking) 정보를 선호하는 지지의견 노출과 기존 입장에 반대되는 정보에 대한 노출 즉 반대의견 노출이라는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진다. 전자는 대부분의 실증연구들에서 지지되고 있지만 후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바 Kobayashi(2006), Garrett (2009), Valentino et al.(2009)의 연구들에서는 공통적으로 반대의견에 대한 노출로 인해 선택적 노출 이론이 예상한 바와 같은 정치적 양극화 우려는 심각하지 않다고 보았다.

지지의견에 대한 노출 현상이 반대의견에 대한 노출 현상보다 일반적이고 우세할 경우 정파성이 강한 청와대 웹사이트의 경우 대통령에 대한 지지자들이 반대자들에 비해 청와대 웹사이트에 보다 많이 접속할 것이다. 즉,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의 대리변수라 할 수 있는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가 높을수록 청와대 웹사이트 방문확률과 방문빈도가 클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설: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가 높을수록 대통령과 정권에 대한 홍보 기능이 강한 청와대 웹사이트를 많이 이용할 것이다."

##### 2) 분석모형

본 연구에서는 Nielsen KoreanClick 가족 ID가 표시된 개인 패널들의 2010년 1년 동안의

---

2) 한국 이명박 정부의 중요한 정치 현안인 4대강살리기, 대학입학사정관제, 자유무역협정(FTA)의 경우 각각 국토해양부(<http://www.4rivers.go.kr/>), 교육과학기술부(<http://uao.kcue.or.kr/>), 그리고 외교통상부(<http://www.fta.go.kr/>)의 주요현안 사이트에 소개되어 있다. 그리고 미국 "No Child Left Behind" 프로그램은 미국 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 웹사이트(<http://www.ed.gov/>)에 소개되어 있다(최연태·박상인, 2011).



청와대 웹사이트 이용 내역이 담긴 클릭스트림 데이터를 가공하여 연간 방문여부와 월평균 방문시간과 방문일수 그리고 페이지 뷰로 측정된 횡단면 자료로 변환시켰다. 여기서 방문시간과 방문일수 그리고 페이지 뷰의 경우 월평균으로 측정하는 이유는 패널 가입기간에 따른 영향을 통제하기 위함이며 방문여부의 경우 패널 가입기간이 통제변수에 포함된다.

핵심 설명변수는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로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에 대한 대리변수에 해당하는바 박종민(1991), 양건모·오숙영(2008), 이곤수(2011)의 연구에서 지지도에 대한 대리변수로 신뢰도가 사용되었다. 박종민(1991)은 정부신뢰를 정부지지와 동일시하면서 정부성과에 대한 지지정도로 측정하는 바 있고, 양건모·오숙영(2008)은 대통령 후보에 대한 신뢰도를 지지도의 선행요인으로 간주하였으며, 이곤수(2011)는 지방정부신뢰의 하위 개념인 기관신뢰를 시장과 시의회에 대한 지지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그 외에도 정부신뢰(trust in government)는 정부체제(regime)에 대한 지지를 측정하는 지표로 사용되거나(Jennings & Niemi, 1968; Abramson & Inglehart, 1970; Miller, 1974; McDonough, Barnes, & López Pina, 1986) 현 당국(authorities)에 대한 지지를 측정하는 지표로 이용되었다(Citrin, 1974; Muller & Jukam, 1977; Park, 1989; 박종민(1991)에서 재인용).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인 청와대 웹사이트 이용에 영향을 미치면서 동시에 핵심 설명변수인 대통령 신뢰도와 관련을 맺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러 변인들을 통제변수로 고려하였다. 왜냐하면 만약 이들을 고려치 않고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할 경우 누락변수 편향(omitted variable biases)가 발생하여 설명변수의 회귀계수에 대한 일치추정량을 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주요 통제변수들은 공공부문 웹사이트를 포함한 인터넷 이용에 관한 선행연구들의 분석 모형 검토를 통해 도출되었으며 크게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범주로 나누어진다. 첫째, 개인들의 정치행태에 관한 변수들, 둘째, 개인들의 미디어 이용 행태에 관한 변수들, 셋째, 사회경제적 지위를 포함한 인구통계학적 변수들, 넷째, 가족구조와 관련된 변수들, 다섯째, 개인들의 인터넷 리터러시 수준을 나타내는 변수들이다.

핵심 설명변수인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가 청와대 웹사이트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종속변수가 0과 1로 표시되는 청와대 웹사이트 방문여부에 대해서는 Logit 회귀분석을 그리고 청와대 웹사이트 월평균 방문시간과 방문일수, 페이지뷰에 대해서는 Tobit 분석을 실시한다. 여기서 Tobit 분석을 실시하는 이유는 설문지에 응답한 Nielsen KoreanClick 패널 1,537명분의 서베이 조사 자료가 분석에 이용되었는데 그중 청와대 웹사이트를 방문한 숫자는 90명에 불과한 절삭된 자료(censored data)이기 때문에 단순 OLS 분석으로는 일치추정량을 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로짓 및 토빗 회귀분석에서의 종속변수, 설명변수, 통제변수 및 각각의 도출 근거가 되는 관련 선행연구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분석모형

종류	변수명	내용	관련 선행연구
종속 변수	청와대 웹사이트이용도	방문여부, 방문일수, 페이지뷰수, 방문시간	최연태·박상인(2011)
설명 변수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		Best et al.(2005)
통제 변수	정치 행태	정치적 관심	Best et al.(2005), Di Gennaro & Dutton(2006), Stroud(2008; 2010), Knobloch-Westerwick & Meng(2009), 최윤정·이종혁(2011)
		지지정당	최연태·박상인(2011), Best et al.(2005), Stroud(2008; 2010), Knobloch-Westerwick & Meng(2009)
	미디어 이용 행태	인터넷 이용시간	Stroud(2008), Best et al.(2005)
		TV시청 시간	
		신문 읽는 시간	
	가족구조 관련변수	결혼여부	Bimber(2000), Ono & Zavodny(2003), Goldfarb & Prince(2008)
		인터넷 이용가족수	Ono & Zavodny(2003), 최연태(2011), 최연태·박상인(2011)
		청와대 웹사이트 방문가족수	최연태·박상인(2011)
	디지털 리터러시	인터넷 리터러시 지수	Ferro et al.(2011), Best et al.(2005)
		인터넷 접속가능 기기수	
		인구통계학적 변수	성별, 연령, 지역, 직업, 소득, 학력

주: 최연태·박상인(2011)의 <표 3>을 바탕으로 재구성하였음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청와대 웹사이트 이용도 함수는 다음과 같다.

$$\text{청와대 웹사이트 이용도} = f \{ \text{대통령에 대한 신뢰도, 정치 행태, 미디어 이용 행태, 인구 통계학적 변수, 가족구조 관련 변수} \} + \epsilon$$

종속변수가 청와대 웹사이트 방문여부일 때의 로짓 분석 회귀모형은 다음과 같다.

$$\ln\left(\frac{P(Y=1|X)}{1-P(Y=1|X)}\right) = \alpha_0 + \sum\beta_k X_k + \sum\gamma_{1k} Z_{1k} + \gamma_2 Z_{2i} + \sum\gamma_{3k} Z_{3k} + \sum\gamma_{4k} Z_{4k} \\ + \sum\gamma_{5k} Z_{5k} + \sum\gamma_{6k} Z_{6k} + \sum\gamma_{7k} Z_{7k} + \epsilon$$

종속변수  $\begin{cases} Y=1: \text{청와대 웹사이트 방문} \\ Y=0: \text{청와대 웹사이트 미방문} \end{cases}$

$a_0$  = 절편,  $X_k$  = 연속형 설명변수,  $Z_{ik}$  = 범주형 설명변수

$X_1$  = 연령(월로 환산),  $X_2$  = 인터넷 이용가족수,  $X_3$  = 본인의 청와대 사이트 방문가족수

$X_4$  = 신문읽는 시간,  $X_5$  = TV시청시간,  $X_6$  = 인터넷이용시간

$X_7$  = 인터넷리터러시,  $X_8$  = 인터넷 접속가능 기기수  $X_9$  = 연간 패널가입기간(월)

$Z_{1k}$  = 지지정당 더미 (기준: 무당파),  $Z_{2k}$  = 지역 더미 (기준: 수도권),

$Z_{3k}$  = 성별 더미 (기준: 여성),  $Z_{4k}$  = 학력 더미(기준: 대졸),

$Z_{5k}$  = 직업 더미(기준: 자영업),  $Z_{6k}$  = 소득수준 더미(기준: 500만원 이상)

$Z_{7k}$  = 결혼여부 더미 (기준: 기혼)

종속변수가 청와대 웹사이트 방문일수와 페이지뷰 그리고 방문시간일 때의 토빗 분석 회귀모형은 다음과 같다.

$$Y^* = \alpha_0 + \sum\beta_k X_k + \sum\gamma_{1k} Z_{1k} + \gamma_2 Z_{2k} + \sum\gamma_{3k} Z_{3k} + \sum\gamma_{4k} Z_{4k} \\ + \sum\gamma_{5k} Z_{5k} + \sum\gamma_{6k} Z_{6k} + \sum\gamma_{7k} Z_{7k} + \epsilon$$

$Y = \begin{cases} Y^* & \text{if } Y^* > 0 \\ 0 & \text{otherwise} \end{cases}$  청와대 웹사이트 월평균 방문일수, 페이지뷰, 사용시간

여기서  $Y$ 는 관측된 월평균 사용시간 및 방문일수, 페이지 뷰이고  $Y^*$ 는 잠재적 월평균 사용시간 및 방문일수, 페이지 뷰이다. 토빗 분석의 경우  $X_9$ (연간 패널가입 개월수)이 포함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 설명변수들은 위 로짓 분석과 동일하다.

## 2. 변수의 측정

### 1)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청와대 웹사이트 이용도로서 연간 방문여부와 월평균 방문시간과 방문일수 그리고 페이지뷰로 측정되었다.

2) 설명변수

본 연구의 설명변수는 크게 여섯 가지 범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본 연구의 핵심 관심 변수인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와 둘째, 개인들의 정치 행태에 관한 변수들 셋째, 개인들의 미디어 이용 행태에 관한 변수들 넷째, 사회경제적 지위를 포함한 인구통계학적 변수들 다섯째, 가족구조와 관련된 변수들 그리고 끝으로 개인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을 나타내는 변수들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개인들의 정치 행태와 관련하여 정치적 관심도와 정치성향을 대변하는 지지정당을 포함시켰다. 여기서 보수나 진보와 같은 이념성향 대신 지지정당을 정치성향의 대리변수로 삼은 것은 아산정책연구원의 ‘2010 한국인 의식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보수와 진보의 개념 구분이 명확하지 못하고 개인별 구분 기준이 매우 자의적이어서 객관성을 담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실제 개인들의 주관적 이념 성향과 지지 정당 간에 상당한 괴리가 있는바 보다 객관적으로 측정가능한 지지정당을 정치성향의 대리변수로 선정하였다(최연태·박상인, 2011).

개인들의 미디어 이용 행태를 대변하는 변수들로는 인터넷 이용 시간, TV시청 시간, 신문 읽는 시간이 해당한다. 인구통계학적 변수들로는 연령, 지역, 성별, 학력, 직업, 가계소득이 포함되어 있으며 가족관련 변수들로는 인터넷 이용가족수, 본인 외 청와대 사이트 방문가족수, 결혼여부가 포함되어 있다. 개인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을 나타내는 변수들로는 인터넷 리터러시 지수와 인터넷 접속가능 기기수가 있다.

이상에서 언급한 변수들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 척도는 다음 <표 3>과 같이 정리된다.

<표 3> 변수들의 조작적 정의 및 척도

영역	변수	내용	척도(또는 측정)
종속변수	청와대 웹사이트이용도	청와대 웹사이트 방문여부, 방문시간, 방문일수, 페이지뷰수	실시간 클릭스트림 데이터로부터 도출
설명변수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		5점 척도 (전혀신뢰하지않음=1, 신뢰하지않음=2, 보통=3, 신뢰하는편임=4, 매우신뢰함=5)
통	정치	정치적 관심	5점 척도

제 변 수	행태		(전혀없음=1, 별로없음=2, 보통=3, 다소많음=4, 매우많음=5)	
		지지정당	정치성향의 대리변수 반한나라 계열, 친한나라 계열, 지지정당없음/기타(기준더미)	
	미디어 이용 행태	인터넷 이용시간	하루평균 이용시간	단위: 분
		TV시청 시간		
		신문 읽는 시간		
	인구통 계학적 변수	연령	개월수로 환산한 나이	
		성별	남, 녀(기준 더미)	
		지역	호남권(광주/전남·북/제주), 중부권(대전/충남·북/강원), 영남권(부산/대구/울산/경·남북), 수도권(서울/인천/경기: 기준 더미)	
		직업	무직/기타, 전업주부, 학생, 블루칼라, 화이트칼라, 자영업(기준 더미)	
		소득	100만원미만, 100-300만원, 300-500만원, 500만원이상(기준더미)	
		학력 <sup>3)</sup>	초·중·고등학생, 고졸, 대학및대학원생, 대졸(기준더미)	
	가족관 련변수	결혼여부	기혼, 미혼(기준 더미)	
		인터넷이용가족수	단위: 명	
		청와대웹사이트 방문가족수	본인 외 청와대 웹사이트 방문가족수(단위: 명)	
	디지털 리터러 시	인터넷 리터러시 지수	세 개 문항 <sup>4)</sup> 의 척도들의 합 (표준화 cronbach $\alpha$ : 0.7)	5점 척도 (전혀그렇지않다=1, 그렇지않다=2, 보통=3, 그렇다=4, 매우그렇다=5)
인터넷 접속가능기기수		단위: 개		
	연간 코리아클릭 패널 등록 기간	로짓 분석에서만 포함됨, 단위: 개월		

3) 학력의 경우 일반적인 관례와 달리 ‘대학및대학원생’과 대졸로 나눈 것은 Nielsen KoreanClick이 구축하여 제공하는 패널 프로파일 자체가 위와 같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인터넷 컨설팅 업체로서 소비자의 소비행태 파악에 초점을 맞추어 학생 집단과 사회인 집단 간 구분을 중시한데 기인한 듯하다.

4) 인터넷 리터러시 지수를 도출하는데 사용된 문항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인터넷에서 원하는 정보를 잘 찾아낸다. 2. 나는 이메일을 사용하는데 아무 불편이 없다. 3. 나는 영어로 된 콘텐츠를 이용하는데 아무 불편이 없다.)

### 3. 분석자료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크게 두 자료의 결합을 통해 분석이 이루어지는바 첫 번째 자료는 Nielsen KoreanClick의 가족별 ID가 부여된 개인 패널들의 2010년 1년 동안의 월별 청와대 웹사이트 이용 내역이 담긴 클릭스트림 원시 데이터이다. 두 번째 자료는 Nielsen KoreanClick 개인패널들을 대상으로 2011년 8월 4일부터 8월 22일 사이에 실시되었던 설문조사인 ‘공적 영역에 관한 네티즌들의 행태 조사’ 결과이다.

클릭스트림 데이터는 패널 ID, 접속날짜와 시간, 체류시간, 사이트ID, 세션 수 등이 수록된 것으로 웹상에서의 개인들의 활동이력 저장물이라 할 수 있다(McEneaney, 2001). 본 연구에 사용된 클릭스트림 데이터는 Nielsen KoreanClick사가 한국의 네티즌 모집단을 대표하는 패널을 구성<sup>5)</sup>하고 이들의 PC에 조사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뒤 패널들의 웹서핑 내역을 자신의 서버에 전달받아 저장함으로써 구축한 것이다(최연태·오현주, 2010).

2012년 1월 현재 Nielsen KoreanClick이 구축한 패널 수는 약 26,000명 정도이며, family ID를 부여한 가구 수는 1인 가구 포함 약 13,000여 가구이다. 그리고 이들 중 ‘공적 영역에 관한 네티즌들의 행태 조사’에 유효하게 응답한 개인패널들의 수는 1593명으로 나타났다.

‘공적 영역에 관한 네티즌들의 행태 조사’는 Nielsen KoreanClick 패널들을 대상으로 성별과 연령을 기준으로 할당표집하여 인터넷 서베이 행태로 실시되었다. 유효 응답자 1,667명 중 응답 에러, 불성실 응답자 등을 제거하여 클린징이 완료된 1,593명의 서베이 응답 결과가 분석에 이용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두 데이터의 결합을 통해 청와대 웹사이트 이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영향요인들을 통제함으로써 주요 관심변수인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의 정확한 영향을 측정하고자 한다. 아울러 청와대 웹사이트 이용에 있어 정파적 원인에 기인한 선택적 노출 현상(partisan selective exposure)이 발생하는지를 실증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방법으로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종속변수가 0과 1로 표시되는 청와대 웹사이트 방문여부에 대해서는 Logit 회귀분석을 그리고 종속변수가 절삭된 자료(censored data)인 청와대 웹사이트 월평균 방문시간과 방문일수, 페이지뷰 등에 대해서는 Tobit 분석을 실시하였다.

5) 실제 국내 인터넷 사용자의 인구구성비가 정확히 대표되도록 패널을 구성하기 어려우므로, 만 7세 이상 65세 이하의 인터넷 이용자에 대한 모집단 실태조사를 통해 성별, 연령별, 지역별 구성비를 조사하고 이를 반영하는 층화표본추출을 한다(최연태·오현주, 2010).

## IV. 주요 변수들에 대한 記述的 분석

### 1.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량 분석

주요 변수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최소값과 최대값으로 대표되는 기술통계량은 아래 <표 4>와 같다. 청와대 웹사이트 연간 평균 방문비율이 관측도수의 6% 수준에 머물러 전반적인 이용도가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대통령에 대한 평균 신뢰도는 2.25로 보통수준인 3보나 낮아 전반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낮은 편이다. 매체 이용에 있어 인터넷 이용시간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TV시청시간이며, 신문 읽는 시간이 가장 적음을 알 수 있다.

<표 4> 주요 연속형 변수들의 기술통계량

변수	관측도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연간 방문여부	1539	0.06	0.24	0	1
월평균 방문일수	1539	0.04	0.37	0	11.37
월평균 페이지뷰	1539	0.01	0.06	0	1.167
월평균 방문시간(초)	1539	0.06	0.55	0	15.5
대통령 신뢰도	1593	2.25	1.02	1	5
정치관심도	1593	2.81	0.91	1	5
연령(개월)	1593	462.77	123.85	231	785
인터넷이용가족수	1593	3.43	1.20	1	8
본인의 청와대방문 가족수	1537	0.03	0.22	0	5
신문 읽는 시간(분)	1593	38.77	79.25	0	652
TV시청 시간(분)	1593	146.65	109.98	0	659
인터넷 이용시간(분)	1593	231.49	172.43	5	900
인터넷 리터러시 지수	1593	11.12	1.97	3	15
인터넷 접속가능기기수(개)	1593	3.04	1.40	1	20
연간 코리안클릭 패널 등록 기간(개월)	1539	10.83	2.51	1	12

지지정당별로 종속 변수인 청와대 웹사이트 연간 방문확률, 월평균 방문일수, 월평균 페이지뷰, 월평균 방문시간 각각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 최소값과 최대값을 구하면 아래 <표 5>와 같다. 모든 종속변수에 대해 평균값의 크기는 무당파, 반한나라계열, 친한나라계열 순으로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여당 지지자가 청와대 웹사이트를 평균적으로 많이 방

문함을 알 수 있어 선택적 노출 현상의 존재를 암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단순 평균 비교로는 다른 요인들에 의한 교란효과(confounding effect)를 통제할 수 없어 지지정당이 종속 변수에 미치는 정확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른 변수들을 모두 함께 고려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표 5〉 지지정당별 청와대 웹사이트 이용도

종속변수	지지정당	도수	평균값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방문확률	무당파	752	0.05	0.21	0	1.00
	반한나라계열	496	0.07	0.25	0	1.00
	친한나라계열	291	0.08	0.26	0	1.00
월평균 방문시간	무당파	752	0.02	0.16	0	2.70
	반한나라계열	496	0.04	0.52	0	11.37
	친한나라계열	291	0.06	0.46	0	5.11
월평균 방문일수	무당파	752	0.01	0.03	0	0.42
	반한나라계열	496	0.01	0.07	0	1.17
	친한나라계열	291	0.02	0.10	0	1.00
월평균 페이지뷰	무당파	752	0.04	0.32	0	6.08
	반한나라계열	496	0.07	0.75	0	15.50
	친한나라계열	291	0.10	0.64	0	6.92

## 2.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종속변수들과 주요 설명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가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본 연구의 핵심 설명변수인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는 5% 유의수준에서 방문여부와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지만 다른 종속변수들인 월평균 방문시간, 방문일수 그리고 페이지뷰와는 10%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에 대한 관심도는 모든 종속변수들과 적어도 10% 유의수준에서는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본인을 제외한 청와대 웹사이트 방문가족수가 네 가지 종속변수 모두와 10% 유의수준에서는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사실이다. 이는 청와대 웹사이트를 방문한 경험이 있는 가족구성원에 의해 일종의 가정 내 외부성(intra-household externalities)을 통한 지식확산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단순상관관계는 다른 요인들에 의한 교란효과



(confounding effect)를 통제하지 않은 것이므로 종속변수와의 정확한 상관관계 분석을 위해서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표 6> 주요 연속형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방문여부	월평균 방문시간	월평균 방문일수	월평균 페이지뷰	대통령 신뢰도	정치관심도	본인외 청와대 사이트 방문가족수
방문여부	1	0.3754 (<.0001)	0.6633 (<.0001)	0.4430 (<.0001)	0.0500 (0.0497)	0.0865 (0.0007)	0.1411 (<.0001)
월평균 방문시간		1	0.85764 (<.0001)	0.95662 (<.0001)	-0.00256 (0.9201)	0.0443 (0.0823)	0.0436 (0.0872)
월평균 방문일수			1	0.84822 (<.0001)	0.03514 (0.1683)	0.0687 (0.007)	0.0860 (0.0007)
월평균 페이지뷰				1	0.01298 (0.6109)	0.0478 (0.0611)	0.0617 (0.0155)
대통령 신뢰도					1	-0.0185 (0.4615)	0.0184 (0.471)
정치관심도						1	0.0259 (0.3097)
본인외 청와대 사이트 방문가족수							1

## V. 제한적 종속변수 모형(limited dependent variable model) 분석 결과

청와대 웹사이트에 대한 연간 방문여부, 월평균 방문일수, 페이지뷰, 사용시간에 대한 로짓 및 토빗 분석 결과는 아래 <표 7>과 같다.<sup>6)</sup>

6) 패널 대다수가 청와대 사이트를 전혀 방문하지 않아 종속변수인 ‘월평균 방문시간’과 ‘월평균 방문일수’, ‘월평균 페이지뷰수’가 0인 경우가 많은데, 단순 OLS기법을 사용하면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과소평가될 수 있어 tobit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7〉 로짓 및 토빗 모형 분석결과7)

설명변수		Logit 분석	Tobit분석		
		방문여부	월평균 방문일수	월평균 페이지뷰	월평균 방문시간
		추정치 (표준오차)	추정치 (표준오차)	추정치 (표준오차)	추정치 (표준오차)
절편		-7.3299*** (1.5439)	-1.0632*** (0.2768)	-6.8062*** (2.0603)	-4.3974*** (1.3370)
대통령 신뢰도		0.2528** (0.1193)	0.0421* (0.0224)	0.2928* (0.1778)	0.1655 (0.1154)
지지정당 (기준: 무당파)	반한나라계열	0.1872 (0.2804)	0.0428 (0.0512)	0.2879 (0.4061)	0.1892 (0.2637)
	친한나라계열	0.1176 (0.327)	0.0304 (0.0613)	0.1838 (0.4910)	0.1706 (0.3181)
정치관심도		0.3838*** (0.1404)	0.0629** (0.0257)	0.4759** (0.2038)	0.3072** (0.1320)
연령		-0.00072 (0.00146)	-0.0001 (0.0003)	-0.0016 (0.0022)	-0.0010 (0.0014)
지역 (기준: 수도권)	호남	-0.3712 (0.3997)	-0.0842 (0.0736)	-0.5724 (0.5833)	-0.3219 (0.3769)
	중부	-0.5369 (0.4262)	-0.0916 (0.0758)	-0.6880 (0.6052)	-0.4053 (0.3918)
	영남	-0.245 (0.2882)	-0.0304 (0.0525)	-0.1511 (0.4156)	-0.0498 (0.2687)
성별 (기준: 여성)	남성	0.3988 (0.2738)	0.0814 (0.0499)	0.4222 (0.3921)	0.2721 (0.2547)
학력 (기준: 대졸)	초중고 학생	0.689 (0.8356)	0.0655 (0.1560)	-0.4755 (1.2056)	-0.3945 (0.7841)
	고졸	0.206 (0.3505)	0.0413 (0.0643)	0.0234 (0.5247)	0.0328 (0.3383)
	대학 및 대학원생	-0.1994 (0.6831)	-0.0927 (0.1220)	-1.7329* (0.9465)	-1.1980* (0.6143)
직업 (기준:	무직/기타	0.4277 (0.6407)	-0.0129 (0.1166)	-1.0542 (0.9017)	-0.7072 (0.5826)

7) 로짓 및 토빗 분석에서 직업 범주인 학생은 학력 범주의 (초중고등학생+대학및대학원생)과 동일하여 다중공선성이 발생하여 탈락하였음.

자영업)	전업주부	0.0185 (0.6831)	-0.0846 (0.1211)	-1.8850* (0.9668)	-1.1847* (0.6227)
	블루칼라	0.2979 (0.6224)	-0.0190 (0.1107)	-1.1800 (0.8573)	-0.7981 (0.5547)
	화이트칼라	0.3589 (0.5179)	0.0154 (0.0914)	-0.7035 (0.6749)	-0.4762 (0.4364)
가계소득 (기준: 500만원이 상)	100만원 미만	0.5045 (0.6046)	0.1377 (0.1116)	0.5830 (0.9260)	0.6228 (0.5813)
	100-300만원	0.0749 (0.3138)	0.0123 (0.0582)	-0.0157 (0.4627)	0.0294 (0.3010)
	300-500만원	-0.42 (0.2846)	-0.0806 (0.0532)	-0.6765 (0.4205)	-0.3927 (0.2740)
결혼여부 (기준:미혼)	기혼	-0.0805 (0.3322)	0.0165 (0.0620)	0.0815 (0.4919)	0.0777 (0.3189)
인터넷이용가족수		0.1699* (0.0989)	0.0290 (0.0187)	0.2384 (0.1478)	0.1427 (0.0960)
본인의 청와대방문 가족수		1.2862*** (0.3772)	0.2037*** (0.0623)	1.6552*** (0.4948)	1.0257*** (0.3208)
신문 읽는 시간		-0.0025 (0.00194)	-4.58E-04 (3.64E-04)	-0.0037 (0.0030)	-0.0022 (0.0019)
TV시청 시간		3.48E-04 (0.0012)	-6.92E-06 (2.16E-04)	-0.0002 (0.0017)	-0.0002 (0.0011)
인터넷 이용시간		2.85E-04 (7.29E-04)	2.73E-05 (1.35E-04)	0.0000 (0.0011)	0.0000 (0.0007)
인터넷 리터러시 지수		0.1035 (0.0674)	0.0173 (0.0124)	0.1296 (0.0984)	0.0846 (0.0638)
인터넷 접속가능기기수		-0.2108** (0.1044)	-0.0353* (0.0191)	-0.2710* (0.1520)	-0.1709* (0.0986)
연간 코리안클릭 패널 등록 기간		0.1423** (0.068)			
Sigma			0.3938*** (0.0353)	3.1058*** (0.2686)	2.0092*** (0.1710)
Log Likelihood			-251.30	-430.99	-389.61
AIC		682.47			
총관측도수(이용된 관측도수)		1593(1537)	1593(1537)	1593(1537)	1593(1537)

주: \* p<0.1, \*\* p<0.05, \*\*\* p<0.01.

## 1.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

먼저 본 연구의 핵심 설명변수로서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를 대변하는 변수인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가 청와대 웹사이트 이용도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면 연간 방문여부에 대해서는 5% 유의수준 하에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가 증가할수록 청와대 웹사이트를 방문할 확률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그리고 월평균 방문일수와 월평균 페이지뷰에 대해서는 10% 유의수준 하에서 유의미한 양의 회귀계수를 갖지만 월평균 방문시간에 대해서는 양의 회귀계수를 가지나 10% 유의수준 하에서 유의미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시간에 비해 방문일수나 페이지뷰로 웹사이트 이용도를 측정하는 것이 개인의 정보처리능력이나 사이트에 대한 익숙함 여부 등으로 인한 왜곡 현상을 줄여주는 동시에 이용자들의 웹사이트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보다 잘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청와대 웹사이트를 자주 방문하고 대통령과 청와대 관련 정보들을 검색해 봄으로써 사이트 방문 경험을 축적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이트에 대한 친숙도와 활용 능력이 커져 짧은 시간에 방문 목적을 달성하고 나갈 수 있게 된다고 볼 수 있다(최연태, 2009). 즉, ‘자주 그러나 짧은(frequent but short)’ 방문패턴이 이루어 질 경우 사용시간과 방문일수나 방문여부는 웹사이트 이용도에 대해 서로 다른 정보를 제시할 수 있다.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높을수록 웹사이트를 통한 접촉(contact)의 지속성이 높을 것이므로 단순한 방문시간보다는 접촉 빈도가 반영된 방문일수나 웹사이트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반영된 페이지뷰가 보다 타당한 측정치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10% 유의수준 하에서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가 연평균 방문여부와 월평균 방문일수 및 페이지뷰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통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즉 신뢰도가 높을수록 대통령과 정권에 대한 홍보 기능이 강한 청와대 웹사이트를 많이 방문할 것이다.”라는 선택적 노출(selective exposure)이론 하에서 상정된 가설이 지지됨을 알 수 있다(가설 채택)<sup>8)</sup>.

## 2. 정치 행태

개인의 정치 행태를 반영하는 변수들로는 지지정당과 정치에 대한 관심도가 포함되어 있다. 먼저 개인의 정치적 성향을 반영하는 변수인 지지정당 더미를 살펴보면 반한나라당 계열, 친한나라당 계열<sup>9)</sup>, 무당파의 순으로 회귀계수가 큼을 알 수 있다. 하지만 10% 유의수준

8) 이러한 결론은 지지정당과 정치적 관심도의 교차항을 포함시킨 모형하에서도 동일하며, 회귀분석 결과는 <부록 1>에 제시되어 있다.

9) 반한나라당 계열 정당으로는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국민참여당이 포함되고 친한

하에서 유의미한 변수는 없었다.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으나 한나라당 정권 하에서 반대 정당 지지자들이 청와대 웹사이트를 상대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경향이 나타난 것은 비록 자신들의 태도나 신념에 반대되지만 이명박 정권을 비판 내지 공박하는 자료로 활용하려 했기 때문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최연태·박상인, 2011).

정치적 관심도는 청와대 웹사이트 방문여부, 월평균 방문일수, 페이지뷰, 방문시간 모두와 최소한 5% 유의수준 하에서 유의미한 양의 회귀계수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치적 관심도가 높을수록 청와대 웹사이트 이용도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지정당과 정치적 관심도 간의 상호작용이 청와대 웹사이트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양자의 교차항을 모형에 포함시킨 회귀분석 결과가 <부록 1>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로짓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반한나라당 계열 지지자의 경우 무당파에 비해 정치적 관심 증가에 따라 청와대 웹사이트를 방문할 확률이 5% 유의수준에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친한나라 계열 지지자보다 반한나라당 계열 지지자가 정치적 관심 증가에 따라 청와대 웹사이트를 이용할 확률이 더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종속변수가 월평균 방문일수와 페이지뷰수, 그리고 방문시간일 때의 토빗 분석결과에서도 무당파나 친한나라 계열 지지자에 비해 반한나라당 계열 지지자의 청와대 웹사이트 이용도가 정치적 관심 증가에 따라 가장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정치적 반대 입장에 관한 정보라 하더라도 효용성(utility)이 클 경우 그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진다는 선행 연구결과들과 부합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Frey, 1986; Valentino et al., 2009; Garrett, 2009; 최연태·박상인(2011)에서 재인용).

## VI.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는 선택적 노출 현상이 시민들의 청와대 웹사이트 이용에 있어서도 실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왜냐하면 시민들의 청와대 홈페이지 이용 상의 선택적 노출 현상이 상당 수준 존재한다면 이는 정치적 양극화를 초래하고 속의 민주주의를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분석의 엄밀성을 제고하기 위해 코리안클릭 패널들의 가족 및 개인 프로필 정보와 클릭 스트림 데이터로 측정된 청와대 웹사이트 이용정보 그리고 이들에 대한 서베이를 통해 추가적으로 측정된 여러 설명변수들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였다.

분석결과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가 청와대 웹사이트 이용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가 높을수록 청와대 웹사이트를 많이 방문할 것이다.”라는 선택적 노출 이론에 입각한 연구가설이 채택되었다. 또한 정치적 관심도가 높을수록 청와대 웹사이트 이용도가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들의 태도나 신념에 반하는 내용이라도 정보의 효용성(utility)이 기대될 경우 그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진다는 선행 연구결과들(Frey, 1986; Valentino et al., 2009; Garrett, 2009)을 고려해 볼 때 이명박 정권에 반대하는 개인들이라도 정치적 관심이 클 경우 이명박 정권을 비판하는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청와대 웹사이트를 방문할 개연성이 큼을 알 수 있다.

또한 지지정당과 정치적 관심도 간의 상호작용이 청와대 웹사이트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정치적 관심증가에 따른 청와대 웹사이트 이용도<sup>10)</sup> 증가율에 있어 반한나라계열 야당 지지자들이 친한나라계열 여당 지지자들이나 무당파들보다 더 큼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선별적 노출이 예상했던 것과는 반대로 정치적 관심이 높은 경우 반한나라계열 야당 지지자들이 오히려 친한나라계열 여당 지지자들이나 무당파들보다 정치적 반대의견에 노출되는 정도가 더 큼을 뜻한다.

이처럼 반대의견 노출은 숙의(deliberation)를 위해 필수적 과정이기 때문에 많은 연구들이 어떤 요인들이 반대의견 노출에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해왔다. 기존의 많은 선행연구들(Chaffee et al., 2001; Mutz, 2002; Knobloch-Westerwick & Meng, 2009)이 제시하는바와 같이 정치적 관심이 높을수록 반대의견 노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최윤정·이종혁, 2011). 또한 본 연구에서는 지지정당과 정치적 관심도의 교호작용이 유의미한 변인으로 파악되었는바 청와대 웹사이트상의 정보가 갖는 효용성이 지지정당별로 다르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즉, 정치적 관심이 높은 야당 지지자들에게 청와대 콘텐츠의 정보효용성이 가장 컸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기존의 많은 연구들이 정보 효용성(information utility)이 높을 경우 인지적 부조화가 발생하더라도 반대의견 노출이 일어남을 보여주고 있다(Atkins, 1973; Knobloch-Westerwick et al., 2005; 최윤정·이종혁(2011)에서 재인용).

여기서 본 연구는 청와대 웹사이트 방문 패널들을 대상으로 ‘정보의 이용의도’와 ‘정보이용에 따르는 효용의 크기’를 직접 측정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즉, 청와대 웹사이트 상에 제공된 정보에 대한 접근과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정치적 성향과 태도 등도 중요하지만 그 정보를 어떤 용도로 이용할 것인지 그리고 정보이용에 따르는 효용의 크기는 어느 정도인지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요소라 할 것이다. 향후 이런 부분을 보완한 추가적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10) 웹사이트 이용도는 패널 등록 기간 동안의 방문확률, 월평균 방문일수, 페이지뷰, 방문시간으로 측정되었음.

본 연구는 개인들의 청와대 웹사이트 이용도 분석을 통해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지지 정도에 따른 미디어 이용 상의 선택적 노출 현상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이로 인한 정치적 양극화와 불관용 그리고 숙의민주주의의 퇴보를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 왜냐하면 야당 지지자라 하더라도 정치적 관심이 높을 경우 반대의견에 대한 노출 현상이 유의미하게 발생하고 있음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어쨌든 높은 정치적 관심과 반대 정보의 유용성 등으로 인해 선택적 노출 현상이 완화될 수 있다면 전자정부 웹사이트 상의 정치적 양극화에 대한 우려는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 참고문헌

- 김은미·이준용 (2006). “인터넷 게시판 토론과 정치 토론 효능감”. <한국언론학보>, 50(3): 393-423.
- 박경효. (2009). “전자정부 서비스 시민만족도와 정부신뢰: 서울시 강남구청의 사례”. <한국지방자치연구>, 10(4): 213-231.
- 박종민. (1991). “정책산출이 정부신뢰에 주는 영향”. <한국행정학보>, 25(1): 291-305.
- 송현주·신승민·박승관 (2006). “인터넷 게시판에서의 이견 읽기가 논변구성과 정치적 관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보>, 50(5): 160-183.
- 양건모·오숙영. (2008). “정책분석연구: 대통령 후보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신뢰이론에 따른 제 17대 대선 후보자 비교-”.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 논문
- 양정애. (2011). “뉴스 기사의 현저성과 이용자의 선택적 노출”. <한국방송학보>, 25(2): 77-117.
- 오미영. (2011). “인터넷 여론과 소통의 집단 극화(極化)”. <현상과인식>, 35(3): 39-62.
- 이근수. (2011). “삶의 질’ 관점에서 본 평택시의 정부신뢰”. EAI Governance Studies Working Paper3
- 정광호. (2003). “정책리터러시(policy literacy) 함수 분석: 시민활동 변인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46(4): 73-104.
- 최연태. (2009). <중앙정부부처 웹사이트 이용에 관한 실증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연태·박상인. (2011). “전자정부 웹사이트 이용 상의 정치적 선택성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보>, 20(3): 231-261.
- 최연태·오현주. (2010). “정보화마을 웹 사이트 이용자 특성 및 이용행태 분석: 클릭스트림 데이터를 이용하여”.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0(2): 283-313.
- 최윤정·이종혁. (2011). “온라인 뉴스 사이트에서의 기사 선택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55(4): 54-75
- Abramson, P. R. and Inglehart, R. (1970). The development of systemic support in four Western democracies.

- Comparative Pol. Studies, 2(January), 419-442.
- Arendt, H. (1968). *Between Past and Future: Eight Exercises in Political Thought*. New York: Viking Press.
- Atkins, C. (1973). Instrumental utilities and information seeking. In P. Clarke (Ed.), *New Models for Mass Communication Research* (pp. 205 ~ 242). Beverly Hills, CA: Sage.
- Best, S. J., Chmielewski, B., & Krueger, B. S. (2005). Selective exposure to online foreign news during the conflict with Iraq. *Harvard International Journal of Press/Politics*, 10(4), 52-70.
- Bimber, B. (2000). Measuring the Gender Gap on the Internet. *Social Science Quarterly*, 81(3), 868-876.
- Bimber, B., & Davis, R. (2003). *Campaigning online: The Internet in U.S. election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Buchstein, H. (1997). Bytes that bite: The Internet and deliberative democracy. *Constellations*, 4(2), 248-263.
- Chaffee, S. H., Saphir, M. N., Graf, J., Sandvig, C., & Hahn, K. S. (2001). Attention to counter-attitudinal messages in a state election campaign. *Political Communication*, 18(3), 247-272.
- Citrin, J. (1974). Comment: The Political Relevance of Trust in Government.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8, 973-88.
- Di Gennaro, C. and Dutton, W. (2006). The Internet and the Public: Online and Offline Political Participation in the United Kingdom., *Parliamentary Affairs*, 59(2), 299-313.
- DiMaggio, P., & Sato, K. (2003). Does the internet balkanize political attention?: A test of the Sunstein theory.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 Atlanta.
- Ferro, E., Helbig, N. C., & Gil-Garcia, J. R. (2011). The role of IT literacy in defining digital divide policy needs, *Government Information Quarterly*, 28(1), 3-10.
- Festinger, L. (1957). *A theory of cognitive dissonance*. Evanston, IL: Row, Peterson.
- Frey, D. (1986). "Recent Research on Selective Exposure to Information." In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19, ed. Leonard Berkowitz. Orlando: Academic Press, 41-80.
- Garrett, R. K. (2006). Seeking similarity, not avoiding difference: reframing the selective exposure debate. Presented at the Annual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Communication Association. Dresden, Germany.
- Garrett, R. K. (2009). Politically Motivated Reinforcement Seeking: Reframing the Selective Exposure Debate. *Journal of Communication*, 59, 676-699.
- Goldfarb, A. & Prince, J. (2008). Internet Adoption and Usage Patterns are Different: Implications for the Digital Divide. *Information Economics and Policy*, 20(1). 2-15.
- Horrigan, J., Garrett, K., & Resnick, P. (2004). The internet and democratic debate. [www.pewinternet.org/pdfs/PIP\\_Political\\_Info\\_Report.pdf](http://www.pewinternet.org/pdfs/PIP_Political_Info_Report.pdf).
- Iyengar, S., Hahn, K. S., Krosnick, J. A., & Walker, J. (2008). Selective exposure to campaign communication: The role of anticipated agreement and issue public membership. *Journal of Politics*, 70(1), 186-200.



- Jaeger, P. T. (2005). Deliberative democracy and the conceptual foundations of electronic government. *Government Information Quarterly*, 22, 702-719.
- Jennings, M. K., & Niemi, R. G. (1968). The Transmission of Political Values from Parent to Child.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2, 169-184.
- Knobloch-Westerwick, S., Carpentier, F. D., Blumhoff, A., & Nickel, N. (2005). Selective exposure effects for positive and negative news: Testing the robustness of the informational utility model.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82, 181-195.
- Knobloch-Westerwick, S., & Meng, J. (2009). Looking the other way: Selective exposure to attitude-consistent and counterattitudinal political information. *Communication Research*, 36, 426-448.
- Kobayashi, T. (2006). The Internet as a Tool for Policy Understanding: Investigating the Influence of Internet Use on Japanese Public Opinion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Marriott, Loews Philadelphia, and the Pennsylvania Convention Center. Philadelphia. PA. 2009-05-24 from [http://www.allacademic.com/meta/p151273\\_index.html](http://www.allacademic.com/meta/p151273_index.html)
- McDonough, P., Barnes, S. H. and Lopez Pina A. (1986) The Growth of Democratic Legitimacy In Spain.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0(3), 735-760.
- McEneaney, J. E. (2001). Graphic and numerical methods to assess navigation in hypertext.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Computer Studies*, 55, 761-786.
- Miller, A. H. (1974). Political Issues and Trust in Government: 1964-1970.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8(3), 951-972.
- Muller, E. N. and Jukam, T. O. (1977). On the Meaning of Political Support.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1, 1561-1595.
- Mutz, D. C. (1998). The influence of perceptions of media influence: Third person effects of and the public expression of opin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Opinion Research*, 1(1), 3-23.
- Mutz, D.C. (2002) The consequences of cross-cutting networks for political participation.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6(4), 838-55.
- Ono, H. & Zavodny, M. (2003). Gender and the Internet. *Social Science Quarterly*, 84(1), 111-121.
- Park, Chong-Min. (1989). Political Support under Authoritarian rule: The Case of South Korea.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 Price, V., Cappella, J.N. and Nir, L. (2002). Does disagreement contribute to more deliberative opinion?. *Political Communication* 19, 95-112.
- Putnam, R. D. (2000).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New York: Simon and Schuster
- Scheufele, D. A., Nisbet, M. C., Brossard, D., & Nisbet, E. C. (2004). Social structure and citizenship: Examining the impacts of social setting, network heterogeneity, and informational variables on

- political participation. *Political Communication*, 21(3), 315-338.
- Stouffer, S. (1995). *Communism, Conformity, and Civilliberties*. New York: Doubleday.
- Stroud, N. J. (2006). "Selective exposure to partisan information" (January 1, 2006). Dissertations available from ProQuest. Paper AAI3246247.
- Stroud, N. J. (2008). Media use and political predispositions: Revisiting the concept of selective exposure. *Political Behavior*, 30(3), 341-366.
- Stroud, N. J. (2010). Polarization and Partisan Selective Exposure. *Journal of Communication*, 60: 556-576.
- Sustein, C. R. (2001). *Designing democracy: What constitutions do*.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Sustein, C. R. (2002) The law of group polarization. *The Journal of Political Philosophy*, 10(2), 175-95.
- Valentino, N. A., Banks, A. J., Hutchings, V. L., & Davis, A. K. (2009). Selective exposure in the Internet Age: The Interaction between Anxiety and Information Utility. *Political Psychology*, 30(4), 591-613.
- Wilhelm, A. G. (1998). Virtual sounding boards: How deliberative is on-line political discussion? *Information, Communication and Society*, 1(3), 313-338.
- 교육과학기술부 <http://uao.kcue.or.kr>
- 국토해양부 <http://www.4rivers.go.kr>
- 외교통상부 <http://www.fta.go.kr>
- 청와대 <http://www.president.go.kr>
- 미국 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 웹사이트 <http://www.ed.gov>

〈부록 1〉 교차항 포함시 로짓 및 토빗 모형 분석결과<sup>11)</sup>

설명변수		Logit 분석		Tobit분석	
		방문여부	월평균 방문일수	월평균 페이지뷰	월평균 방문시간
		추정치 (표준오차)	추정치 (표준오차)	추정치 (표준오차)	추정치 (표준오차)
절편		-6.5266*** (1.5007)	-0.9754*** (0.2736)	-6.5508*** (2.0628)	-4.4680*** (1.3529)
대통령 신뢰도		0.2423** (0.1202)	0.0430* (0.0229)	0.2998* (0.1800)	0.1700 (0.1170)
반한나라계열*정치관심도		0.1823** (0.0776)	0.0683*** (0.0256)	0.5653*** (0.2039)	0.3201** (0.1303)
친한나라계열*정치관심도		0.1327 (0.0950)	0.0625** (0.0276)	0.5077** (0.2197)	0.2974** (0.1408)
무당파*정치관심도			0.0499* (0.0291)	0.4214* (0.2306)	0.2231 (0.1482)
연령		-0.0005 (0.0015)	-0.0002 (0.0003)	-0.0017 (0.0022)	-0.0009 (0.0014)
지역	호남	-0.3881 (0.3955)	-0.0813 (0.0736)	-0.6042 (0.5812)	-0.2907 (0.3728)
	중부	-0.4659 (0.4238)	-0.0939 (0.0766)	-0.7077 (0.6060)	-0.3731 (0.3899)
	영남	-0.2271 (0.2879)	-0.0258 (0.0526)	-0.1366 (0.4141)	-0.0415 (0.2690)
성별	남성	0.4839* (0.2704)	0.0809 (0.0502)	0.3201 (0.3886)	0.3381 (0.2568)
학력	초중고 학생	0.6797 (0.8331)	-0.0202 (0.1570)	-0.4168 (1.2023)	-0.4181 (0.7907)
	고졸	0.2047 (0.3491)	0.0303 (0.0647)	0.0444 (0.5223)	0.0889 (0.3356)
	대학 및 대학원생	-0.2475 (0.6808)	-0.1731 (0.1228)	-1.7365* (0.9473)	-1.1722* (0.6151)
직업	무직/기타	0.3522 (0.6375)	-0.0550 (0.1150)	-1.0665 (0.9031)	-0.6488 (0.5807)
	전업주부	-0.0178 (0.6798)	-0.1204 (0.1199)	-1.9085** (0.9649)	-1.0790* (0.6192)
	블루칼라	0.1933	-0.0677	-1.2006	-0.7417

11) 로짓 및 토빗 분석에서 직업 범주인 학생은 학력 범주의 (초중고등학생+대학및대학원생)과 동일하여 다중공선성이 발생하여 탈락하였음.

		(0.6172)	(0.1092)	(0.8581)	(0.5516)
	화이트칼라	0.2658 (0.5123)	-0.0281 (0.0890)	-0.6798 (0.6747)	-0.4605 (0.4385)
가계소득	100만원 미만	0.4730 (0.6023)	0.1381 (0.1127)	0.5865 (0.9263)	0.6704 (0.5772)
	100-300만원	0.0113 (0.3116)	0.0145 (0.0584)	0.0317 (0.4601)	0.0446 (0.3003)
	300-500만원	-0.423 (0.2844)	-0.0856 (0.0537)	-0.7188* (0.4214)	-0.4107 (0.2750)
미혼	-0.1134 (0.3319)	0.0184 (0.0622)	0.0516 (0.4909)	0.1286 (0.3190)	
인터넷이용가족수	0.1569 (0.0988)	0.0313* (0.0189)	0.2334 (0.1475)	0.1487 (0.0961)	
본인외청와대방문가족수	1.3077*** (0.3733)	0.2022*** (0.0627)	1.6340*** (0.4933)	1.0299** (0.3208)	
신문 읽는 시간	-0.0023 (0.0019)	-0.0004 (0.0004)	-0.0036 (0.0029)	-0.0022 (0.0019)	
TV시청 시간	0.0004 (0.0012)	-3.26E-06 (0.0002)	-0.0003 (0.0017)	-0.0002 (0.0011)	
인터넷 이용시간	0.0003 (0.0007)	2.12E-05 (0.0001)	1.30E-05 (0.0011)	3.94E-05 (0.0007)	
인터넷 리터러시 지수	0.1128* (0.0669)	0.0186 (0.0125)	0.1245 (0.0979)	0.0896 (0.0638)	
인터넷 접속가능기기수	-0.1991* (0.1032)	-0.0362* (0.0192)	-0.2708* (0.1517)	-0.1645* (0.0982)	
연간 코리아클릭 패널 등록 기간	0.1393** (0.0678)				
Sigma		0.3958*** (0.0358)	3.0976*** (0.2675)	2.0069*** (0.1705)	
Log Likelihood		-251.35	-430.78	-389.18	
AIC	684.786				
총관측도수(이용된 관측도수)	1593(1537)	1593(1537)	1593(1537)	1593(1537)	

주: \* p<0.1, \*\* p<0.05, \*\*\* p<0.01.

## ABSTRACT

# Is There Partisan Selective Exposure in Blue House Website Usage?

Yeontae Choi

This paper focuses on partisan selective exposure in Blue House Website Usage, which deserves attention because partisan selective exposure in the usage of e-government websites can impede deliberative democracy. For the purposes of the paper, the clickstream data of Nielsen KoreanClick panels were employed to trace accesses to and usage volumes of the Blue House Website in 2010, and data were also gathered from Nielsen KoreanClick, which did a web-based survey in 2011, 'Survey on the Behavior of Internet Users in the Public Sector,' using its own personnel panels.

The empirical analysis indicates two findings. First, personal trust in the president and political interest has a significant influence on website usage. That is to say, people with higher trust in the president are more likely to visit the website and this is the same as the analysis of usage measured by the number of daily visits and by the number of page views. Second, considering interactions between political interest and party support, the rates of increase in website usage as political interest increases are in this order: opponents to the governing party, supporters of the governing party, and supporters of no party. This has something to do with the prior studies that mentioned that opponents of the governing party tried to use e-government information to criticize the government and the governing party.

This study implies that, although there is selective exposure to website usage, the concern about the political polarization is not too serious.

**【Key Words: Blue House website usage, partisan selective exposure, trust in president, political interest】**